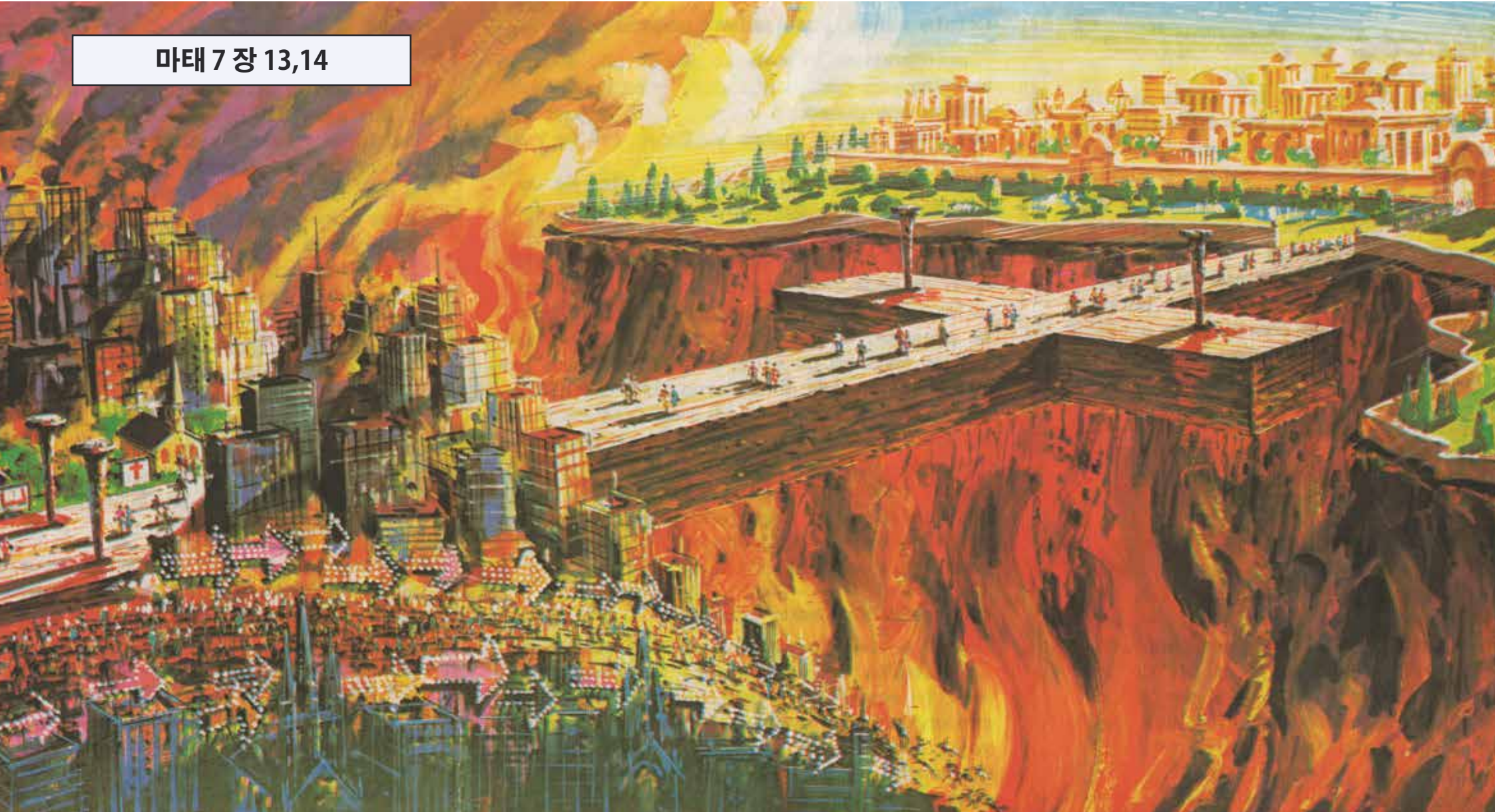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태 7 장 13,14



# 생명으로 초대

1. 당신이 직면하게 될 길의 목적지를 아십니까?

당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 당신은 귀와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찾는 넓은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질문: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2. 당신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며, 곧 당신이 광대한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시계가 마지막 종을 울리고,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당신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3. 하지만 예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을 구원하시길 원하여서, 하늘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내려 오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미 예수님의 내민 손을 본 적은 없습니까?

당신이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4. 넓은 길 위에서 선한 목자 예수께서는 오늘도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당신이 주님의 사랑과 음성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반복: **예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죄는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 사탄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사14:12). 이러한 사탄의 반역이 제거되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조화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엡1:4). 이 대역사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하나님은 인류가 시험을 받으면 실패할 것을 아셨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40:7,8)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세주로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으며, 의로우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고후 5:21; 갈 3:13). 그리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는 항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지대를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출생 때부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 성경학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3,5)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정결하게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3:6)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잃어버린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아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즉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 나아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요3:7,10).

거듭 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확실히 선택할 필요가 있는 방향입니다. 육신의 길에서 신령한 인생길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바로 앞면 그림이 보여줍니다. 육신으로 난 사람은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길을 버려야만 하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곧은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면 다음의 영광스런 영원한 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1:12-13)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골2:13)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일한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자들만 참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Gerhard Schadt-Beck

*Publisher:*

Evangelical Missionary Service **LAV-LEHRET ALLE VÖLKER** e.V.  
P.O.Box 154, 74348 Lauffen a. N. Fon + Fax: 07133 - 7527  
GERMANY International: 0049 - 7133 - 7527

E-Mail: [lav@lehret-alle-voelker.de](mailto:lav@lehret-alle-voelker.de)

Homepage: <http://lehret-alle-voelker.de>

*Printed in Germany:*

druckerei**bothner** · Heilbronner Straße 14-16 · 74348 Lauffen a. N.  
<http://druckerei-bothner.de>

The ordering person - not the publisher -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permitted distribution of this pamphlet.

**당신께서 신앙상담이나 성경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위의 문서선교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